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새해에도 이어질 DAMG 디지털 콘텐츠... 채널A (동영상과 뉴스터디) 1억 뷰 돌파	3면	조선 꽃청춘들의 호텔리어 도전기 <체크인 한양> 방영 전부터 연이은 해외 계약...21일 첫 방송	4면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	--	----	--	----	-------------



① 동아미디어그룹 수습사원들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옥상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② 일민미술관 내 신문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는 수습사원들 ③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들이 11월 29일 '우리가 그리는 DAMG' 워크숍에서 DAMG의 핵심가치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④ 채널A B&C 사운드디자인팀 포스트프로덕션부 김형석 팀장이 11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 DDMC에서 수습사원들에게 드라마 사운드 믹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수습사원들이 '우리가 그리는 DAMG' 워크숍에서 완성한 그림.

Welcome to DAMG! 동아미디어그룹 수습사원 32명 입사

'RISE with DAMG' 8일간 교육 통해 DAMG와 함께 성장할 미래 탐색...입문·직무 교육 뒤 12월 초 현장 배치



동아미디어그룹(DAMG)의 미래를 열어갈 새 얼굴들이 11월 25일 입사했다. 동아일보 수습사원 16명(기자 8명, 미디어경영직 8명)과 채널A 수습사원 16명(기자 7명, PD 5명, CD 3명, 미디어경영직 1명) 등 32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기자와 PD, CD는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문과 직무 교육을 받은 뒤 12월 5일 일선 현장에 배치됐다. 미디어경영직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타 직군과 함께 입문 교육을 받은 뒤 12월 2일 소속 국·실·본부에 배치됐다.

6주 인턴 실습 거친 수습사원들, 수습 교육 후 현장 배치
 이번엔 입사한 기자, PD, CD들은 8월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약 4개월에 걸친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친 뒤 6주간의 인턴 현장실습을 받았다. 미디어경영직 신입사원들은 10월부터 서류 전형과 3차례의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치밀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저널리스트와 콘텐츠 제작자, 미디어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수습사원들은 내부

교육 과정을 통해 DAMG의 구성원으로 거듭났다. 올해 수습사원 교육 프로그램 이름은 'RISE with DAMG'다. 단순히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DAMG와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세부 프로그램은 성장과 진정성, 참여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2세대의 특성과 다양한 직군 간의 혼합 교육이란 점을 고려해 설계했다. 동기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네트워크 형성도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다. 프로그램명에 담은 'RISE'는 4가지 교육 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R(Rules)은 회사에 대한 이해, I(Industry)는 비즈니스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 S(Synergy)는 DAMG 구성원으로서 마인드셋의 함양, E(Expertise)는 직무역량 강화를 각각 의미한다. 특히 전체 계열사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교육 과정의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 DAMG에서 제작하는 신문과 방송, 출판, 디지털콘텐츠뿐 아니라 문화, 스포츠 사업, 디지털 비즈니스, 미디어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

이 속한 직군과 조직뿐 아니라 DAMG의 다양한 계열사 업무에 대해 알아야 조직 간 업무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밀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수습사원들은 "회사의 산업군, 사업 영역, 핵심 가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입문 교육 마지막 날 진행된 '우리가 그리는 DAMG' 워크숍은 수습사원들의 호응이 가장 컸다. 수습사원들은 팀을 나눠 DAMG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하여 그림으로 직접 표현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어떻게 DAMG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직군별 맞춤형 교육으로 기본기 쌓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뤄진 직무 교육은 현장 투입 전 알아야 할 필수 지식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동아일보와 채널A

수습기자들은 사흘간 미러클럽이 구성한 기자 코어클래스 교육을 받았다. 첫날 취재윤리와 경찰서 취재에 대한 공통 교육 이후 이틀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나뉘어 기사 작성과 취재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신문기자 교육 중에는 편집국 유근형 뉴스기획팀장의 '빨간펜 기사 강의' 수업에 대한 호응이 컸다. 유 팀장은 4시간에 걸쳐 데스크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트레이트 등 기사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미러클럽 서상희 기자는 채널A 수습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기자, 영상취재, 그래픽, 영상편집 담당 간의 협업 방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채널A 수습PD와 수습CD는 3일간 영상 촬영 기법 교육과 영상 제작 실습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업에 투입되기 전 표현하고 싶은 영상을 함께 제작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DAMG PD, CD로서의 삶을 그려나갈지에 대해 담구했다.

새해에도 이어질 DAMG 디지털 콘텐츠...채널A <동맹과 뉴스터디> 1억 뷰 돌파

<법정모독>, <집어드림> 등 동아일보 유튜브 콘텐츠도 출격



① 동정민 앵커가 11월 22일 <동맹과 뉴스터디>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맞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② 편집국 산업2부 부동산팀이 부동산 전문 디지털 콘텐츠 <집어드림>을 위해 의기투합한다.
③ 화제의 칼럼으로 온라인 누적 조회수 550만 회를 기록한 황형준 정치부 차장이 <법정모독>을 진행한다.

- “조미료 없는 팩트가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 “알마르기 쉽게 분석해 주는 게 고등어구이 가시를 일일이 알려주시던 어머니 손길 같습니다!”

11월 22일 <동맹과 뉴스터디>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맞아 진행한 수능 퀴즈 이벤트에 ‘박사님들(구독자 애칭)’이 남긴 댓글이다. 채널A 보도본부의 디지털 전용 콘텐츠인

<동맹과 뉴스터디>의 누적 조회수가 11월 15일 1억 회를 돌파했다. 2022년 9월 30일 첫 회가 업로드된 뒤 약 2년여 만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 <동맹과 뉴스터디>가 롱런하며 대표 시사 유튜브로 자리매김한 중심에는 메인뉴스 앵커에 정치부장 그리고 유튜브까지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동정민 앵커가 있다. 다만 동 앵커는 “뉴스터디의 1억 조회수는 보도본부 전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공소장, 판결문, 법안 등 기사가 접근할 수

있는 취재 날 것을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협조해 줬고, 그 핵심을 뽑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엮어냈을 뿐이다”라고 했다. <동맹과 뉴스터디>가 회를 거듭하면서 ‘역주행’ 콘텐츠도 계속 나오고 있다. 11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새로 제작된 두 편 외에 과거 콘텐츠에서 늘어난 조회수만 73만 회에 달한다. 인기 가수의 과거 노래에 저작권료가 쌓이듯 과거에 만든 콘텐츠에 차곡차곡 조회수가 쌓인 것. ‘시사 백과사전’이라는 별칭도 생긴 <동맹과 뉴스터디>는 평균 4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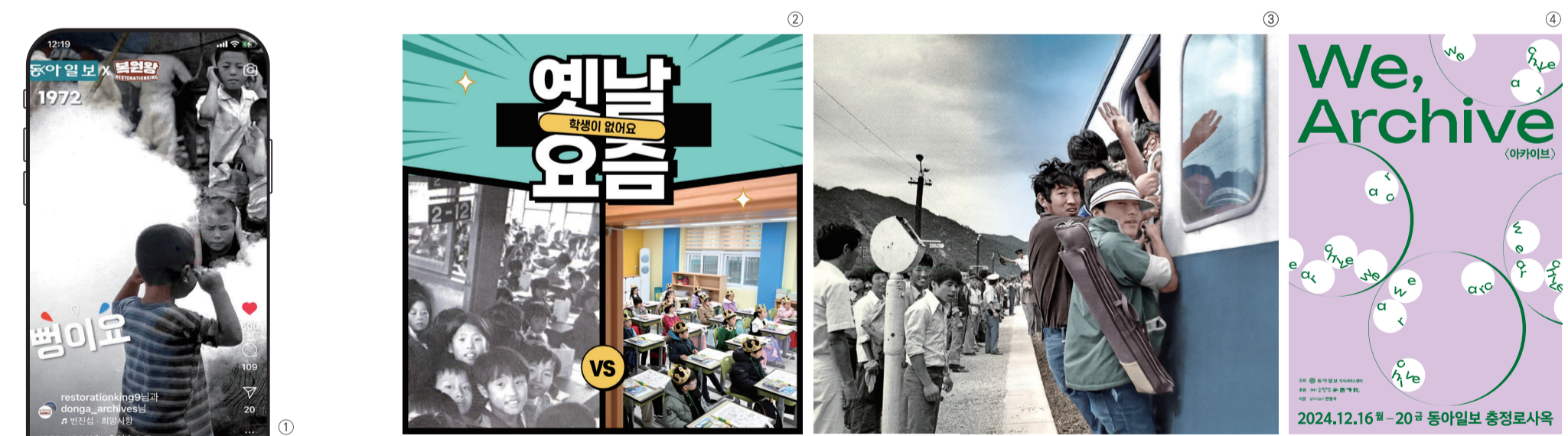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통령실, 여야 정치인 들은 물론 기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블’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동아일보의 유튜브 전용 콘텐츠도 약진하고 있다. 10월 31일 첫 선을 보인 <법정모독>은 황형준 정치부 차장이 18년간 정치권과 법조계를 취재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의 맥락을 세세히 짚어냈고, 첫 방송 조회수는 30만 회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12월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실질

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집어드림>도 새로 선보인다. 도합 35년의 취재 내용을 가진 편집국 산업2부 부동산팀 기자들(김호경·최동수·이축복·오승준 기자)이 ‘전 국민이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정책 변화, 투자 전략 등을 흥미롭게 풀어 낼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DX본부 영상콘텐츠팀 신준모

동아일보 104년 역사를 만나다...‘We, Archive <아카이브>’展 개최

12월 16~20일 충정로사옥 오프라인 전시...웹사이트도 새 단장



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는 사진 DB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① 유튜브 크리에이터 ‘복원왕’과 선보인 인스타그램 릴스 ② 옛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는 ‘옛날 요즘’ ③ 복원왕과 협업한 1970년대 경춘선 청량리역 모습 ④ ‘We, Archive <아카이브>’전 포스터

지식서비스센터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사옥에서 ‘We, Archive <아카이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동아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던 동아 미디어그룹 아카이브 콘텐츠 90점을 모아 마련됐다. 충정로사옥 1층 커뮤니케이션센터에는 동아일보의 기념비적인 지면과 신문아여성동아 등 다양한 출판물을 전시한다. 엘리베이터 옆 전시 벽면에는 김대중 전 대

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 우리 현대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캐리커처가 걸렸다. 또 9층 스마트 멀티룸의 가설 전시장에 마련된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는 ‘옛날 요즘’ ▲인스타그램 협업 작가의 작품을 모은 ‘최작가의 스케치북’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과 ‘나대로 선생’ 동아방송의 소장품과 방송 당시 프로그램을 들어볼 수 있는 ‘동아방송(DBS)’ 섹션 등으로 구성했다. 3곳의 전시를 모두 살펴본 관람객에게는 출판국이 기증한 단행본 도서, 창간호

기법파일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지식서비스센터 아카이브기획파트는 동아일보의 오랜 유산인 사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동아닷컴의 ‘동아디지털아카이브’ 웹페이지 개편을 통해 ‘인터뷰&’와 ‘신문광고 컬렉션’의 문을 열었다. ‘인터뷰&’은 20세기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한 기사들을 모은 큐레이션

이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450명의 인물 인터뷰 기사 약 2500건이 모였다. ‘신문광고 컬렉션’은 창간 때부터 1990년대까지 동아일보 지면을 거쳐 간 수많은 상품과 기업 광고를 선별해 아카이브로 구축한 것이다. 38개 기업의 신문광고 3094편을 보여준다. 여기에 지식서비스센터는 인스타그램@donga_archives)을 통해 외부와의 협업에도 힘쓰고 있다. 11월 5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복원왕’과의 협업으로 동아일보 DB속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영상 ‘추억 속으로’ 편이 공개됐다. 김갑식 지식서비스센터장은 “동아일보 DB는 1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축적된 현대사의 보고(寶庫)”라며 “과거의 기억으로만 끝나는 DB가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는 뉴 콘텐츠, 젊은 독자들이 즐겨 찾는 ‘데이터 쉽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서비스센터 아카이브기획파트 구미애

조선 꽃청춘들의 호텔리어 도전기 <체크인 한양>

방영 전부터 연이은 해외 계약...21일 첫 방송
'드림캔버스 스튜디오'에 용천루 구현...독창적 세계관 창조



12월 21일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체크인 한양> 티저 영상에는 조선 최고의 여객 용천루와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는 꽃청춘 인턴 사환의 모습이 담겼다.

채널A의 새 주말드라마 <체크인 한양>이 오는 12월 21일(토) 베일을 벗는다. <체크인 한양>은 '손님은 왕'이라는 무엄한 기치를 내건 조선 최대 객주 '용천루'에 입사한 조선 꽃청춘 인턴 사환들의 풋풋한 사랑과 좌충우돌 성장기를 담은 판타지 사극이다.

정체를 숨긴 왕자 이은(배인혁 분), 모종의 이유로 남장 여자로 살고 있는 홍덕수(김지은 분), 용천루의 상속자인 천준화(정건주 분),

망한 상단 가문 출신의 고수라(박재찬 분)까지, 신분과 배경이 모두 다른 조선의 꽃청춘 4인방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용천루'에 입사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조선시대에 지금 같은 호텔이 있었다면?'이라는 발칙한 상상에서 시작된 용천루는 기존 사극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창조했다. 제작진은 동아미디어그룹의 드라마 세트장인 '드림캔버스 스튜디오

오'에 용천루의 화려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구현해 냈다. <체크인 한양>을 총괄하는 스튜디오D 박종은 CP는 "조선시대 임금의 궁궐 맞은편에 세워진 용천루는 시청자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곳에서 그려지는 네 청춘의 로맨스와 성장은 시청자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네 명의 청춘 배우들과 함께 베테랑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용천루의 주인이자 세상을 자신의 부로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천방주(김의성 분), 현왕 이현위(한재석 분) 그리고 손자를 왕으로 만들려는 병조판서 오영락(윤재문 분)이 왕좌를 놓고 펼쳐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긴장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제작진은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체크인 한양>은 방영 전부터 글로벌

OTT와 잇따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청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지역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Rakuten Viki를 통해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송수하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강혜빈

채널A 개국 13주년을 축하합니다!

포토월에서 기념 촬영하는 DAMG 사원들

채널A가 12월 1일 개국 13주년을 맞았다.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삼양 DDMC 로비에는 개국 13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 포토월이 설치됐다. 다양한 표정과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채널A 개국 13주년을 기념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사진을 모았다.



사진=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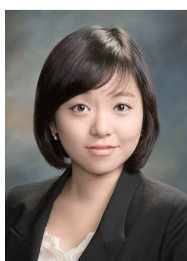
수상소식

이헌재 기자, 이길용 체육기자상 수상



편집국 스포츠부 이헌재 기자(사진)가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육기자 연맹이 수여한 제35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이길용 체육기자상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수한 손기정 선생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이미지 기자,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 수상



편집국 오피니언팀 이미지 기자(사진)가 12월 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26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에서 보도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 기자는 동아닷컴의 온라인 칼럼 '이미지의 포(four)에버 육아'를 통해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 기자, 2024 연세 언론인상 수상



보도본부 편집2부 김진 기자(사진)가 11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열린 '연세 언론인의 밤'에서 '2024 자랑스러운 연세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회 각계에서 성과를 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동문에게 수여되며 올해 처음 제정됐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수습 입사



김다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구정물에 가까이 발을 담그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온갖 난관들을 묵묵히 견디며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 ② 요즘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야식을 즐기고, 군것질도 덜 먹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단짠'한 음식도 최대한 자제하는 중입니다.



김민지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진심으로 애정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삶의 사소하지만 분명히 빛나는 순간을 포착해 관객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러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 ② 책 '디 에센셜: 한강'을 읽으며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일기장에 옮겨 적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겨울마다 듣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도 잊지 않고 매일 듣고 있습니다.



방성은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공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로 세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② 어쿠스틱부터 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곡은 저장해뒀다가 코인노래방에 가서 불러보곤 합니다.



임유나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가면 갈수록 고민과 궁금증을 얻고 돌아옵니다. 좋은 선배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사는 평생 배우는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장 잘 배우겠습니다.
- ②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만남을 가지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정면을 모아 추운 겨울에도 꺼낼 수 있는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승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오펙이처럼 끈질긴 정성력을 갖춘 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의연하게 견디겠습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② 처음으로 한강 작가의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었고, 이제부터 '채식주의자'를 읽어 들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주말이 오면 '환'을 읽으려 합니다.



조영우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누가 꼭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직하게 제 할 일 하고 있습니다.
- ② 근래 며칠은 기타가 죽 진열된 낙원상가를 배회하다 왔습니다. 시간 있을 때 기타 연습 좀 다시 해둘까 생각 중입니다.



천중현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기교보다는 기본을, 편법보다는 정공법을 택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몸을 내던지는 데 주저하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9년 동안 복싱을 해왔습니다. 두 달간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건강과 체력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효정 /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 ① 동아일보 기자직 입사자 최효정입니다. 선배들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하는 스피디 같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기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② 느낌 좋은 공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 각테일바, 독립 영화관, 작은 서점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윤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 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동아일보에서 넘길 수 있어서 영광이고,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봐 준 이곳, 동아에 이윤을 남기는 이윤이 되겠습니다.
- ② '운동'입니다. 필라테스 4년 차, 헬린이로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보는 운동도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못 밟을 수는 있어도 한 번만 볼 수는 없다는 아이스하키에 빠져있습니다.



이희재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 ① 안녕하세요! 마케팅본부 신입사원 이희재입니다. 동아일보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발 빠른 인재로 속속 성장하겠습니다.
- ② 취미로 즐기던 발레와 현대무용을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퇴근 후에 두통치 운동하는, 건강한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최승원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 ① 백 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아일보사의 권위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함과 동시에 기존의 틀을 깨는 도전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 ② 어렸을 때 배웠던 수영을 최근에 다시 시작하여 요즘은 수영에 관심이 향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점이 수영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김민서 /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 ① 동아일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팀과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낚시를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올해는 양평에서 낚시를 즐겼고, 내년에는 포천에 가볼 예정입니다. 낚시대 추천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김예린 /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 ① 학창시절 동아악공쿠루에 참가한 인연을 통해 동아일보 문화사업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② 이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공간을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열린 제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직주 근접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선유진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 ① 동아일보에서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와 친화력으로 매체와 플랫폼을,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② 최근 jpop 밴드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기타를 배우려고 합니다!



송태현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 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여 나중에 저와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와 재밌겠다', '와 든든하다'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빠르게 배우겠습니다!
- ② 기계적으로 헬스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진심으로 즐겨 했던 농구 같은 운동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고, 활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정규연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 ① 안녕하세요!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입사 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기든 후임으로, 친절한 동기로, 또 후임엔 따뜻한 선임으로 동아일보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 ② 저는 맛집 탐방에 진심입니다. 최근엔 날씨가 추워지길래 고등어 봉초밥과 석회를 먹었어요. 광화문 근방 맛집을 속속들이 알아내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 채널A 경영전략실 CD

- ① 사람 좋은 CD가 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 ② 운동이 좋아합니다. 헬스를 주 3회 정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한겸 / 채널A 경영전략실 CD

- ①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정한겸입니다.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이 한 몸 다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 ② 최근에는 여행에 관심이 생겨 외국인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언어에도 능통해질 수 있도록 성실히 공부하겠습니다.



한민주 / 채널A 경영전략실 CD

- ①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드는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CD가 되고 싶습니다. 즐겁게 도전하겠습니다.
- ② 느낌 좋은 카페를 찾아 지도 앱에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근처 커피, 디저트 맛집을 물색 중입니다.



김성현 / 채널A 스튜디오E PD

- ① 무엇이든 흡수하고, 어디든 스며드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 ② 생존을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D, 달맞이꽃 종자유는 꼭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석명성 / 채널A 스튜디오E PD

- ① 못할 것도 없!
- ② 오아시스 재결합, 오아시스 내한 확정.



양다연 / 채널A 스튜디오E PD

- ①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능 PD로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 건네겠습니다.
- ② 입사하면 풋살을 꼭 뛰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기분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풋살 동호회를 만들어 채널A FC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현규 / 채널A 스튜디오E PD

- ① 열심히 노력하여 일인분을 하는 PD가 되고, 이후 일상의 모습들을 비일상을 통해 표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 ② 방탈출과 점퍼배를 등 액티브한 취미활동을 가져보려합니다!



최범기 / 채널A 스튜디오E PD

- ① 동아미디어그룹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시청자에게도, 동료에게도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알맹이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 ② 러닝에 관심이 생겨 인근 하천 위주로 조금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동하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단독을 많이 하겠습니다. 채널A를 대표하겠습니다"같은 포부도 있지만,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동하랑 같이 일하면 기분이 좋더라. 참 좋은 사람이자 동료인것 같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오는 2월부터 그래미 어워드가 시작됩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미 어워드를 꼭 챙겨봐 왔던 만큼 올해는 어떤 가수와의 앨범이 수상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김지우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 ② '내 집 마련' 하고 싶습니다.



송채은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겠습니다. 멋지게 일하겠습니다.
- ②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오세정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인턴을 하며 현장에 나갈 때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현장에 강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2살짜리 보리콜리 믹스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 후 허벅지는 강아지를 보며 부딪힘을 느낍니다. 좋은 산책 코스 알고 계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정경은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이 글을 쓰기까지 12년 걸렸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② 체력 증진을 위해 헬스장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최다희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머리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부지런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껴부리지 않고 성실히 배워 어디든 필요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 ② 고등학교 시절 제2외국어로 선택했던 스페인어를 다시 배우볼까 합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최근 듀오링고를 다룬받았습니다.



홍지혜 / 채널A 보도본부 기자

- ① 시선이 닿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믿습니다. 넓고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② 점영을 마스터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턴 시작 전에는 한팔 점영까지 인수했으나, 한참 점영을 익힐 때 그만뒀 아쉬움이 많습니다. 채널A 대표 물개가 되고 싶습니다.



이황희 / 채널A 경영지원본부

- ① 안녕하십니까? 채널A 재무회계팀 신입사원 이황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회사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건강식 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성주 / 채널A 경영전략실 CD

- ① 안녕하세요! 영성콘텐츠팀 심성주입니다. 첫이 직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동아미디어그룹에서 새롭게 만들 콘텐츠가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큼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② 얼마 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번역 없이 바로 읽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민음사



곽장원 / 채널A 전략기획본부

- 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채널A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불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②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한 6개월 예쁜 딸입니다. 제 관심사는 온통 이 친구입니다. '요즘 육아 급격같은 내새끼' 1회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 ③ 데에스엠씨홀딩스

·경력 입사